

대한양계협회 소식

감별사 경진대회 및 금년도 제 2 차 자격시험 개최

— 여인재 감별사 3 분 40초로 우승차지 —

감종감별사 21명과 고등감별사 4명이 새로 탄생했다. 지난 10월 31일 본회에서 열린 금년도 제 2 차 감별사 자격시험에 감종은 32명이 응시하여 21명이 합격하므로써 65.6%의 합격률을 보였고 고등은 14명 응시에 4명이 합격하여 28.6%의 저조한 합격률을 기록했다.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감종 : (남자)

윤복규, 이열규, 박용희, 송태옥, 조양호, 김산동, 김종전, 강성윤, 김기식, 고덕수, 박현준, 김경성, 이태종, 김홍길 (이상 14명)

(여자)

양근화, 정운수, 박미성, 장옥희, 이해경, 조영애, 서정춘 (이상 7명)

고등 :

윤복규, 주근환, 하경미, 여인재 (이상 4명)
한편 자격시험에 앞서 경진대회가 열렸는데 입상자는 아래와 같다.

우승 : 여인재 (천호부화장) 3 분 40초 100%

준우승 : 김수환 (고창양제) 4 분 21초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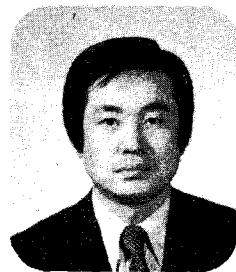
3위 : 박오희 (삼일농장) 3 분 45초 99%

장려상 : 정유범 (한일농원) 3 분 49초 99%

이날 여인재씨는 100%의 정확률을 기록하며 우승하여 감별사 자격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고등 감별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경진대회는 15명이 참가하였고 이날 각자로부터 찬조가 있었는데 찬조업체는 다음과 같다.

천호부화장, 신기농장, 삼일농장, 고창양제센



(정재인 감별분과위원장)

타, 유일농원, 양지부화장, 독일 만월회 (윌케). 경진대회는 본회가 감별분과 위원회와 함께 매년 한번씩 갖는 큰 행사로서 올해는 새로 우승 기를 만들어 수여했고 입상자에게는 대형 은컵과 상패 그리고 부상으로 각각 시체 하나씩을 전



△ 감별에 여념이 없는 감별사 (고등 4명, 감종 21명의 감별사가 새로 탄생했다.)



△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을 차지한 여인재 감별사

● 대한양계협회 소식

말했다. 찬조를 해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 를 드리며 감별분과 위원장 정재인씨를 비롯한 분과위원 및 시험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또한 감사를 드린다.

안정화방안(시안)을 놓고 토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추진위원 및 자문위원들은 회의 를 마치면서 양계산업 안정화를 위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백년대계를 위해 안정화방안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계산업안정 추진 연석회의

— 안정화방안 시안 검토 —

10月21日 본회 회의실에서 양계안정기금 추진 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종합하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할 목적으로 열렸는데 양계산업

기사정정

본지 지난달 10월호 P 128 뉴캣슬병 라소생
독 백신(필자: 장세창)에 대한 원고중 뉴캣
슬병 생독백신 B₂는 B₁이 잘못 표기된 것이
기애 정정 합니다.

本會 닮 經濟能力檢定所處分 計劃公告

1. 概況 :

現檢定所는 1971年 6月에 取得하여 鷄舍, 管理舍 等의 施設을 갖추어 能力檢定 事業을 繼續하여 오는 동안 自體施設의 老朽와 汚染 그리고 周邊에 부로일러 및 採卵農場, 豫備軍射擊場, 機械製作工場, 軍人官舍 等이 隣接하게 되어 檢定本然의 事業을 遂行하기 어려운 與件에 놓이게 되므로서 本會 檢定委員會를 거쳐 81年度 第4次理事會에 附議하여 當所를 賣却處分키로 議決하고 이 事案處理를 檢定 所處理委員會에 委任키로 하였음.

2. 處分計劃

本會定款 第25條 및 第35條에 依據하여 總會議決後 主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處分코 저함.

3. 不動產의 表示 :

가. 代表番地 : 京畿道 金浦郡 檜丹면 불로리

나. 토지 (16필지) : 대지 4,602평

 담 338평

 임야 2,452평

다. 건물 (10필지) : 주택 2동 35.76평

 계사 및 부화실, 사무실

 7동 676.47평

 사료창고 1동 10.2평

 제분창고 1동 20평

 물저장탱크 2개 (각 50드
 럼입)

4. 부탁의 말씀

회원께서는 매각처분에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替代地(可及의이면 南쪽)를 물색하는 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양계협회 경정소처리위원회〉